

제 4 강 근대 고전주의 철학: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루소)

◆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 ◆



△ 의심의 역사

-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 뫼론¹⁾(Pyrrhon, 385-275) : 지식에의 의심 (epoche(에포케), 판단중지)→ 현상학에 영향.
- 플라톤과 대립되는 회의론자.
- 데카르트 :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의심

△ 데카르트의 자아(自我)

- Ego Cogito (결코 양도될 수 없는 '나'자신에 대한 통찰) → Ich denke (Kant)
- ⇒ **자아 개념**의 정립(개인의 철학적 기반, 경제활동에서 독립적인 주체로 부상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 제공)
- ⇒ **근대 철학**을 연 위대한 철학자

1)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와 소피스트의 영향을 받아 회의론에 대해 가장 먼저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물의 진리를 알고 나서 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물의 진상을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 자체를 유보(epoche)하는 편이 낫다는 것.

스피노자

△ 데카르트의 인간 존재의 문제

- 정신과 몸이 전혀 상관없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
- ⇒ 데카르트(지성주의적, 이원론적, 유아론적 사상)의 정신과 물질의 관계 전체를 새롭게 생각하게 함. 이를 바탕으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의 실체론 등장.

◆ 스피노자, 속성으로 존재하는 실체 ◆

△ 직관과 연역



스피노자



* 『에티카(윤리학)』

- "나는 자기 원인이란 그것의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또는 그것의 본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 "참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갖는 동시에 자기의 생각이 참됨을 알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

⇒ 철저히 **직관**에 의한 길을 가려 함.

* 속견지→공통관념의 지→**직관지**

- 자신의 직관을 철저히 믿고 출발 (철학자는 직관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 근본적인 직관을 '정의(正義)' 혹은 '공리(公理)'라 부르고 그것들에서 각종 '정리(定理)'를 연역해 냄.

△신=자연=실체

- 신이 곧 자연이고 실체이다.

→ 실체란, '자신 안에 있으면서 자신에 의해 생각되는 것' 즉,

인간 존재의 모습을 우주 전체로 확대시킨 것.

- 신은 자신에 의해 자기 자신을 생산한다.

→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되는 자연의 구분.

→ 신의 양태 : 실체의 변화에 의해 생겨난, 존재하는 만물.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의 영향)

⇒ 만물의 운동은 필연적, 인간 역시 신의 양태이기에 필연적으로 강제되는 존재이다.